

특집 I - 색으로 표현되는 정원의 혼합식재

컬러 가든의 혼합



1. 정원의 화색이 주는 이미지

정원의 색은 정도(색의 톤)에 따라 정원의 느낌에 많은 변화를 주고 또 그 안에서 얻고자 하는 효과가 색으로 인해 달라진다는 것을 설명하고자 한다. 색은 보는 사람의 오감을 자극하고 이미지를 환기시키는데, 그 중에서 주된 감정효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청색계열의 꽃색은 신뢰, 희망, 안심, 냉정 등과 바다나 하늘과 같은 맑고 푸른 공간을 연상하게 한다. 따라서 신경을 많이 쓸 때 나타 흥분상태가 이어져 초조하여 불면상태일 때 청색꽃은 마음을 평온하게 해준다.

따라서 청소년이 있는 집이나 불면증이 있는 가정의 정원에 좀 더 많이 심는 것도 한 방법이고 간혹 정원의 수목이나 프리플, 아이리스 등의 동색계 식물과 열

은 색의 핑크색 등을 섞어 꽃병에 꽂아 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다.

핑크색은 아름다운 색으로 꿈을 꾸는 듯 한 분위기나 꽃의 향기를 연상할 수 있는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상하게 하는 꽃이다. 숙근 아네모네, 아스타 켈로우, 아스틸베 푸밀라, 거북머리, 여러가지 패랭이, 카네이션, 분홍의 수국 등이 좋은 화색을 낸다. 핑크는 불안을 진정시키고 행복한 마음을 품는 색이다. 물론 장미, 국화 등의 살분 핑크 등과도 아주 좋은 조화를 이룬다.

황색은 유채색 중에서 명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눈에 잘 띄고 가까이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준다. 짙은

색과 혼합하면 대조를 이루기 쉽고 기억에 남기 때문에 전시용으로 이용할 때는 빠져서는 안 된다. 특히 밝은 노랑은 사람들의 기분을 들뜨게 하고 뇌를 자극하여 소극적인 기분을 일소시키고 파이팅하게 하는 면이 있어 사교적인 공간에 연출하면 좋다. 오렌지 계열과 혼합하면 캐주얼한 느낌을 주고 청색계와는 따뜻한 느낌을 준다.

오렌지색계통은 노랑의 밝은 성격과 적색의 활동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로써 스텔라원추리, 산국, 코데마리 오렌지, 노



호불꽃색과 레드 그리고 오렌지색을 섞은 장계를 나타내는 정원은 안정되어 보이면서도 감성하고 활력 있는 리더십인 정원을 연출 했다. (2011년 영국 RAU정원 박람회)

랑에키나, 숙근해바라기, 꽃백합 오렌지계, 동자꽃 등의 주황색 계통은 특히 식욕을 돋구는 색이다. 또한 사물을 전향적으로 잡아주어 에너지와 마음을 자유롭고 편하게 풀어주는 색상으로 즐거움을 느끼게끔 함으로 식당의 정원 등에 적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비슷한 색으로의 혼합은 따뜻함을 느끼게 하여 친숙함이 나 단란함의 이미지도 준다.



파랑의 색상은 안정되고 활기찬 느낌과 눈을 매우 편안하게 해 준다. 이곳은 2011프랑스 쇼트 정원박람회장의 정원으로 청색으로 단조하면서도 오묘한 곳에 연출하기에 알맞다. 주요 식물로는 페루니아와 시부미, 이소토마, 하행의 가우라 등 단 4종의 식물들 적용한 정원이다.

특집 1 색으로 표현되는 정원의 혼합식재

컬러가든의 혼합

빨강색은 떠오르는 햇살을 연상하는 강렬함의 색이고 여름의 색이다.

붉은 카네이션은 어버이날과 연결되는 생명의 이미지, 붉은 장미는 정열적인 사랑의 이미지로 연결된다. 짙은 적색은 쓰면 고급스러운 연출이 되기도 하지만 너무 무거워 질 수도 있어 장소를 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흰색을 바탕으로 하여 배색하면 고급스럽고 중후하면서도 화려함을 연출할 수 있어 시도에 불만하다.

하양색은 꽃의 색중에서도 가장 온한 색이다. 하지만 그 꽃들이 가진 느낌에 의해 확연하게 바뀌는 색이기도 하다. 포인트가 되는 것도 좋고 아니면 다른 포인트 식물들 더욱 돋보이게 하는 조연의 역할도 매우 잘하는 색이다.

하양색은 자극적인 색을 지니지 않아 다른 색을 돋보이게 하거나 지나친 배색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색과 색 사이를 중재하는 편리한 색으로

의 느낌을 무겁게도 하고 얹을 하게도 한다.

〈사진 1〉은 필자가 2005년 웰시 플라워 쇼를 참관했을 때 출품되었던 정원으로 암적색의 톤을 전문적으로 이용한 정원이다.

이 정원은 참 무겁게 느껴진다. 그러나 안정감과 고급스러움을 주고 있고 뭔가 좋은 세로움이 일어날 것만 같은 생각이 들게 한다. 고목으로는 적당함과 적당자루 그리고 암갈색의 지작나무가 이용되었고 관목으로 적자색의 팻죽나무와 메자나무 그리고 빨강의 장미를 포인트로 강조했다. 초목로 이용한 적자색의 식물들은

대표적인 뉴질랜드삼(Phormium tenax)과 백문동 '흑룡', 유케라, 회향 등의 적자색 무늬종을 이용하여 통일감을 주고 벤치 주변에는 청색의 '제비꼬깔'과 분홍색의 디기탈리스, 파랑의 사투비와 파스텔톤의 비바스럼을 일부 적용하여 약간의 다른 색을 적용한 정원이다. 안정적이면서도 힘이 있는 정원의 연출이 되었다. 〈사진 2〉의 경우 단풍과 아스팔레 그리고 적자색 카리의 강렬하고 정열적인 힘이 느껴지는 모습으로 〈사진 1〉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

이 외에도 이와 같은 아이덴티를 할 수 있는 식물들은 펜스테몬 상록홍련, 적엽칠경아, 적엽병꽃, 적엽 국수나무, 아죽기와 단풍새련, 붉은에기꽃의비름, 적자색의 잎을 갖는 가우리와 붉은잎동자, 숙근사투비와 '데드보사', 삼색조팝, 홍피와 적엽칼로버와 갈사초 등을 이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색과 식물 본연의 느낌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런 정원테마는 열린 공간보다는 닫힌 공간이나 경계를 구분하는 정원에 이용해도 좋을 것이다.

2) 감정을 차분하게 안정과 희망의 정원 – Blue Color

우리가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색은 청색과 녹색이다. 일반적인 자연의 색이라 할 수 있다. 녹색은 중성의 색으로 일반적이지만 청색계열은 하늘과 바다 강물 바람 등을 연상시키는 색이다.

〈사진 3〉은 2005년 웰시의 출품작인데 연한 청색에서 짙은 청색을 이용한 정원으로 벽과 구조물들을 자연색 혹은 밝은 색을 이용하여 희망과 안정을 추구한 정원이다. 보는 것만으로



사진 1

로 정신이 안정되고 특히 시원할 것 같은 착각을 들게도 한다. 연한색의 물망초와, 지취, 파리꽃을 기본으로 하여 톨을 잡고 거기에 저면아이리스의 맑은 색과 짙은 청색을 섞었고 또한 파랑의 캄파놀라를 포인트처럼 이용했다. 구조물은 목재의 편안함과 화이트색의 바닥으로 한층 더 편안함을 연출했고 한편으로 물을 도입해 더 안정감과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사진 4〉의 정원은 〈사진 3〉과 연결된 정원인데 식물의 조성을 조금 바꾸어 표현했고 〈사진 3〉이 직선적 연출이라면 〈사진 4〉는 곡선의 구조물을 주어 좀더 활력 있는 정원을 구성했다. 물론 이용한 수목도 차이 있는 수형의 나무들로 적용되었다. 그리고 적용 식물들 기낮은 물망초와 사투비와, 이질풀, 매발톱 등을 적용하였다.

이 외에도 이와 유사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식물로는 배초향, 왕아주가, 하늘매발톱, 아스타 '발라드', 초롱꽃 '켄트벨', 층꽃, 클레마티스 '아스쿨', '카라', '키트', '프리지던트' 등의 덩굴성을 이용해도 좋을 것이다. 우리의 용머리, 절굿대, 만약 물을 도입한다면 부레옥잠의 파란꽃도 잘 어울릴 것이다. 하늘용담의 강한 청동색도 가을에 필요할 것이고 음지쪽의 관목으로 산수국도 요긴하다. 도라지를 하양과 혼합해 연하게 색을 배색하거나 꽃단디 에메랄드로 이른 봄을 디자인해도 좋다. 물론 여기에도 사용되었지만 숙근사투비와 프리즈 종류도 멋지게 적용될 것이다. 만약 화분과의 직립의 선이 필요하면 색 '블루마운틴' 혹은 꽃장 '해비메탈'을 중간 중간 섞어 심으면 신비감도 줄 수 있을 것이다.



사진 4

클레마티스

화려한 덩굴식물

클·레·마·티·스



다양하고 아름다운 화색은 조경용, 분화용으로 모두 좋은 소재

꽃이 아름다운 덩굴식물로 각광받고 있는 소재가 클레마티스(Clematis)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230여종 이상이 있고 상록성에서 반상록성, 낙엽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생활형을 가진다. 대부분 5월경도에 개화가 시작되는데 클레마티스의 꽃은 크기, 모양, 색에서 다양함을 보여준다. 대륜종의 경우 화색이 다양하며 고급주택 등지에 좋다. 소륜종의 경우 울타리나 울타리가 높은 곳에 이용하게 좋으며 이들은 대체로 성장속도가 빠르다. 중간경도의 크기를 가진 종류는 사계절이 많으므로 터널용 등에 유리하다.

클레마티스는 햇빛이 잘 드는곳에서 잘 자라고 주기적인 관수와 영양공급을 해주어야 생육이 좋다. 토양은 비옥하고 부식도가 풍부한 땅과 약산성에서 잘 자란다. 그리고 아들을 식재할 때는 다른 종류와는 다르

게 약간 길게 8~10cm깊이로 심어주면 토양에서 더욱 튼튼한 줄기를 올린다. 주로 문제되는 병으로 시들병이 있는데 이는 약간 깊게 심어 주고 부엽토 혹은 낙엽 등으로 뿌리주변을 덮어주는 것이 좋다.

클레마티스는 기어오르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알맞은 지지대가 필요하므로 램스, 파고라, 아치, 트릴리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여러줄종을 번갈아 혼식하여도 좋고 인동류, 눈소화, 으름 등 타 덩굴식물과 어울려 심어도 좋다. 또한 꽃이 매우 화려하여 분화용으로 좋은 소재인데 생장력이 왕성하지 않고 모양이 아담한 품종은 화분에 덩굴고리를 설치하여 가정에서 손쉽게 기를 수 있다.

아직 설계할때나 현장에서는 품종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적용하고 있는게 현실인데 '우리꽃'에서는 이번에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선택하고 아울러 손쉽게 원하는 품종을 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품종을 출시할 예정이다.



[Clematis]

꽃도 다양하며 크기가 작은 꽃은 5~6cm이고 큰 꽃은 15cm 이상 되는 것도 있다. 꽃잎도 겹꽃과 겹꽃이 있으며 개화기도 조금씩 다르다. 줄기는 3~9m 까지 자라고 잎은 알몸 끝이 3갈래로 길러져서 길쭉한 심장형으로 붙어 있다. 줄기는 약간 목질화되어 있다. 원산지인 주로 전세계의 온대 지방으로 북아메리카에 20종, 동아시아에 50종, 한국에는 38종 이상이 나와 전세계에 약 150~200종이 난다.



2015년

Clematis hybrid garden plant

클레마티스 12종 출시

- 꽃이 매우 아름답고 화려합니다.
- 주택정원에 벽면녹화용(유인물 설치)으로 안정맞춤입니다.
- 가정원예용으로 화분에 기르는 것이 가능합니다.

www.uriseed.com

우리꽃 TEL : 031-634-7990 010-9107-7991

국내 최초의 정원 잡지

월간

Garden in

- 월간 가든인은 사진잡이 아닙니다.
- 월간 가든인은 우리 생활속 정원 이야기입니다.
- 월간 가든인은 직접 따라해 볼 수 있는 실용 정원 잡지입니다.



- 무통장입금 : 농협 355-0030-2359-03 [우리꽃영농조합법인]
- 문의전화 : 031-712-7009

[에코홀 시스템]

인공조립(人工組立)과 자동조립(自動組立)의 차이점



부스중간에 배치한 화분은 예
코양틀과 예코센스는 꽃담, 중앙
양틀과, 띄우지 않았을게다만,
볼라드, 화분 등 다양하게 이용
할 수 있다. 특히 예코센스는 간
단하게 현재 반반화화 도랑의 신
지역할과 거주물을 구분하는 저
수권을 넣고 흙 채움용 수 측면
에는 관목을 심어 안정감을 유
지하고 상단에는 지하고는 높은
야료목을 포인트로 식재하고 그
하부에는 아생화 등을 심고 물을
충분히 주면 된다. 그리고 약간
의 물을 저수통에 채우기만 하면
최소 3개월은 유지된다.



경계용으로 업체적 디자인이 가능한 화분용 에코헨스

우리꽃의 싹을 사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전시 안내소 내부

월간 가든인 홍보 가판대

이천그린아카데미가 주최하는 국화분재 전시회

'아단법석'강좌에서 우리의 먹거리를 주제로 강연중인 나훔채 총장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가든종자 100선

품 목	단 가	공 급 시 기	비 고
100종	3,000~5,000원 / 봉	2015년 2월	배송비 별도

양귀비, 매발톱, 루피너스, 아우브리예타, 사포나리아, 스위트피,
불가리스할미꽃 등

- 일반 도시민을 위해 다양한 품종의 가정원예용 종자를 구비했습니다.
- 소포장(꽃씨봉투)으로 원하는 수종을 부담없이 구 매할 수 있습니다.
- 기업 홍보용, 그린 마케팅용으로 최적의 상품입니다.



구입문의  우리꽃
전화. 031-634-7990

[illegible]

2015년
우리꽃
신품중
안내

2014년도 하반기 새롭게 판매했던 품목부터 2015년에 새롭게 선보일 품종, 그리고 현재 개발중인 품종(예고)들을 선별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정원에 새로운 식물을 적용시 반영한다면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할 수 있을 것이다.

신록

반상죽

임지

반원지

음지

개화기

초경
cm

화색

내한성

Zone 5

-20 ~ -10

Zone 6

-10 ~ 0

Zone 7

0 ~ 10

현재 육성종이거나 시험재배 중인 품종으로 보급을 기다리는 품종입니다.

우리꽃에서 자체 개발하여 세계에 선보이는 품종보호 상품종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로얄티 수출 Coreuri

코레우리

우리드림/골든볼/링/팅커벨/글로브/하디 시리즈

- 우리꽃이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한 품종으로 5월말부터 연중개화하는 품종
- 현재 세계적으로 '우리꽃'이 가장 많은 품종을 개발한 품종군
- 화색, 초장, 꽃의 크기, 형태 등이 매우 다양하여 기호에 맞게 선택가능
- 정원, 도로변, 화분에 단일 군식하거나 다른 식물과 혼합식재시 더욱 아름다운 경관 연출
- 분화용으로도 매우 유망한 품종



코레우리 연구모장

우리드림시리즈 Uri Dream

'우리꽃'이 처음 선보인 코레우리 품종으로 군식용, 정원용, 군화용을 다양한 용도로 이용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색상을 갖추고 있어 기호에 맞게 선택이 가능하다.

우리드림 레드

품종등록번호 : 10201300045

40 ~ 50

품종보호번호 : 제2397호

Zone 6

Zone 6

우리드림 핑크

품종등록번호 : 제2397호

40 ~ 50

품종보호번호 : 제2397호

Zone 6

Zone 6

우리드림 화이트

품종등록번호 : 102012000287

40 ~ 50

품종보호번호 : 제4413호

Zone 6

Zone 6

우리드림 옐로우

품종등록번호 : 제4413호

40 ~ 50

품종보호번호 : 제4413호

Zone 6

Zone 6

우리드림 오렌지

품종등록번호 : 제4413호

40 ~ 50

품종보호번호 : 제4413호

Zone 6

Zone 6

골든볼시리즈 Golden Ball

노란색계통의 꽃을 5월말부터 파우머 동그란 구형에 가까운 초형을 가지고 있다. 크게 색상의 밝기와 초장에 따라서 품종이 나누어진다.

골든볼 26호

품종등록번호 : 제4413호

40 ~ 50

품종보호번호 : 제4413호

Zone 6

Zone 6

골든볼 39호

품종등록번호 : 제4413호

40 ~ 50

품종보호번호 : 제4413호

Zone 6

Zone 6

골든볼 42호

품종등록번호 : 제4413호

40 ~ 50

품종보호번호 : 제4413호

Zone 6

Zone 6

골든볼 48호

품종등록번호 : 제4413호

40 ~ 50

품종보호번호 : 제4413호

Zone 6

Zone 6

골든볼 62호

품종등록번호 : 제4413호

40 ~ 50

품종보호번호 : 제4413호

Zone 6

Zone 6

링시리즈 Ring

꽃의 중심에 꽃무늬가 링을 이루고 있는 품종으로 초형이 구형인 품종(골든링, 루바링)과 일반 형태인 품종(골드링)으로 나누어진다.

골든링

품종등록번호 : 제4413호

40 ~ 50

품종보호번호 : 제4413호

Zone 6

Zone 6

루바링

품종등록번호 : 제4413호

40 ~ 50

품종보호번호 : 제4413호

Zone 6

Zone 6

골드링

품종등록번호 : 제4413호

40 ~ 50

품종보호번호 : 제4413호

Zone 6

Zone 6

팅커벨시리즈 Tinker Bell

팅커벨 레드

품종등록번호 : 102013000440

30 ~ 40

Zone 6

Zone 6

팅커벨 핑크

품종등록번호 : 102013000436

30 ~ 40

Zone 6

Zone 6

팅커벨 퍼플

품종등록번호 : 제4413호

30 ~ 40

Zone 6

Zone 6

팅커벨 골드레드

품종등록번호 : 102014000475

30 ~ 40

Zone 6

Zone 6

팅커벨 골드핑크

품종등록번호 : 102014000475

30 ~ 40

Zone 6

Zone 6

팅커벨 골드퍼플

품종등록번호 : 제4413호

30 ~ 40

Zone 6

Zone 6

하디시리즈 Hardy

연노란색의 꽃이 작고 조밀한 골드스타

품종등록번호 : 102014000469

30 ~ 40

Zone 5

Zone 5

연노란색의 꽃과 잎이 황금색인 골드일

품종등록번호 : 102014000473

30 ~ 40

Zone 5

Zone 5

밝고 연한 노란색의 꽃 레몬사벳

품종등록번호 : 102012000271

30 ~ 40

Zone 5

Zone 5

반경질의 파스텔톤 주황과 분홍의 혼합 미리

품종등록번호 : 102012000230

40 ~ 50

Zone 6

Zone 6

파스텔톤 연노랑 바탕에 주황과 분홍의 혼합 하디오렌지

품종등록번호 : 제4413호

40 ~ 50

Zone 6

Zone 6

원한 노란색의 꽃 하디골드

품종등록번호 : 제4413호

40 ~ 50

Zone 6

Zone 6

꽃이 크고 밝은 노란색 하디크림

품종등록번호 : 제4413호

40 ~ 50

Zone 6

Zone 6

백일련과 화색이 바뀌는 하디트라킬라

품종등록번호 : 제4413호

40 ~ 50

Zone 6

Zone 6

원한 핑크색의 꽃 하디핑크

품종등록번호 : 102014000471

40 ~ 50

Zone 6

Zone 6

가우라 / 하늘국화

베이비시리즈/ 고추잠자리 / 실잠자리/ 선미

장기개화의 대표종 *Gaura*

가우라

베이비시리즈 / 고추잠자리 / 실잠자리 / 선미

- 화색이 아름답고 최고의 장기개화형
- 우리꽃이 개발 보급하는 가우라품종은 한층 업그레이드된 품종
- 이제 정원, 도로가, 골프장 등에 필수 품종
- 건조한 곳에서 약간의 반음자리에서도 잘 자란다.



베이비시리즈 *Baby*

키가 작아 절대 쓰러짐이 없는 품종으로 볼에 식재하면 눈물부터 서리가 올때까지 계속 꽃을 볼 수 있다.



밝고 화사한 연분홍 베이비 핑크



선명하고 화려한 품종 베이비 레드



관상 가치가 뛰어난 노란색 줄기 베이비 골든트리



볼게 타오르는 꽃의 비상 고추잠자리

초형은 직문반에 속하여 꽃, 꽃대, 꽃봉오리가 진한 붉은색을 띤다.



가는 선 파라 꽃이 주렁주렁 실잠자리

키가 크면서 가는 줄기를 따라 많은 꽃이 핀다. 꽃은 흰색바탕에 가장자리가 분홍색을 띠고 꽃봉오리는 진한 붉은색을 띤다.



안정된 초형의 세련미 선미

안정된 초형과 깨끗한 화색은 고급스러움을 더해준다. 분홍색의 꽃을 가지며 꽃봉오리는 붉은색을 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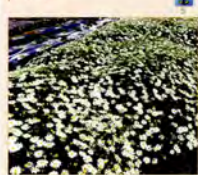


봄부터 가을까지 꽃방식 *Anacyclus*

하늘국화

- 화색이 다양하고 장기개화형 신품종
- 화수가 많고 매우 조밀한 초형을 가지고 있어 분화용으로 안정맞춤
- 도로가, 화단조성시 군식하거나 혼성식재시 베이스식물로 적용하면 좋다.
- 키가 작고 지피력이 뛰어나 정원의 앞 라인식물로 적용하면 항상 꽃이 있는 화단으로 연출가능

순백의 아름다운 꽃방식 화이트



여러 꽃보다 아름다운 강렬한 황금빛 금방식



기자는 장기개화형 국화 준주



아름다운 외색의 일과 분홍빛 홍엽



반짝반짝 빛나는 작은 분홍빛 애가별



조팝골든바

인동해오름 / 무늬몰리아 / 부용빅스타 / 눈분홍짚레

봄부터 가을까지 아름다운 경관연출 *Spiraea*

조팝 골든바

품종출원번호: 2014-18



- 조팝나무를 이용하여 새롭게 개발한 관목소재
- 봄부터 여름까지 황금색, 가을에는 단풍이 일품
- 생울타리용, 경계용, 포인트용으로 고급스런 연출가능
- 생육이 빠르고 배수가 잘 되는 양지와 반음지에서 잘 자란다.

황금색 신품종 인동 *Lonicera*

인동 해오름

출원예정



- 진한 황금색은 잎 자체로도 관상 가치가 뛰어나다.
- 단일종류로 이용해도 좋고 다른 인동당글과 번갈아가며 연출할 수 있다.
- 봄부터 여름까지 황금색, 가을에는 단풍이 좋은 당글식물

자람이 빠른 담장차폐용 *Rosa*

눈분홍짚레



- 생육이 매우 강하고 순번음이 좋아 매우 빨리 자란다.
- 꽃터널, 담장차폐, 독립수로 안정맞춤의 소재
- 포도송이와 같은 꽃차례는 마디마다 꽃이 맞힘으로 온통 꽃담을 형성한다.

화려한 여름 대형의 꽃 *Hibiscus*

부용 빅스타



- 여름 아름다운 대형의 꽃은 정원용으로 좋은 소재
- 키가 작아 쓰러짐이 없고 생육이 강건하다
- 도로변, 공원, 전원주택 등 어디에 적용해도 좋다.

고급스런 무늬종 *Molinia*

무늬몰리아



- 잎의 줄무늬 뿐만 아니라 전체 초형이 좋은 식물
- 아리가든, 혼합식재시 포인트용 또는 알라민소재으로 이용하면 좋다
- 고급스런 잎은 분화용으로도 좋은 소재

가든조아 딸기팩

베란다에서 딸기를 즐기자.

가정에서 계절에 상관없이 수확하는 가든조아 딸기팩.

40~50일후 베란다에서 빨간 딸기가 주렁주렁 달콤하고 깨끗한 딸기가 열립니다.

가든조아 딸기팩 : 7천원

연락처 031-712-7009
(딸기포종+상토 주문시 금액 추가됩니다)

큰꼬리수크령

휴게라 / 대사초골든팁 / 실유카 골든하트 / 왕속새

대형의 포기는 독립수로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Pennisetum*

큰꼬리수크령

Zone 7

- 꼬리형태의 큰 꽃대는 최고의 관상가치
- 아치형을 이루는 긴 잎의 아름다운 선이 특징이다.
- 혼합식재, 혼성식재시 포인트식물로 유리하다.
- 가을행사용, 디스플레이용으로 좋은 소재



고급스런 잎은 꽃을 능가하는 품위가 있습니다. *Heuchera*

휴게라



-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잎이 일품이다.
- 고급정원의 포인트식물로 좋고 분화용으로 좋은 소재
- 반음지에서 생육이 좋고 물빠짐이 좋은 비옥한 토양을 선호한다.
- 품종에 따라 잎이 적색계열, 녹색계열, 무늬종 등이 있어 기호에 맞게 선택 가능



음지의 신소재 *Carex*
대사초 골든팁



- 잎 전체가 황금색으로 음지를 밝게 해준다.
- 다른 대사초와 어울려 이질만으로도 문양연출이 가능하고 침입성이 없어 안전하다.
- 일반적으로 약간의 습기를 좋아하지만 건조에도 강하다.

겨울에도 강한 무늬종 *Yucca*
실유카 골든하트



- 타 무늬종에 비해 크고 생육이 강하다.
- 정원의 포인트 식물, 돌메지용으로 좋다.
- 겨울에도 꽃꽂이 형태를 유지하고 촉촉하고 물빠짐이 좋은 곳에서 잘 자란다.

음지의 좋은 디스플레이용 식물
왕속새 *Equisetum*



- 키가 크고 겨울 상록성으로 음지, 습지용으로 매우 좋다.
- 대나무와 같은 고급스런 느낌은 정원의 디스플레이용으로 안정맞춤
- 특별한 관리없이도 생육이 좋다

붓들레야

홍매자나무 / 초콜릿 코스모스 / 패랭이신품종

여름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관목 *Buddleja*

붓들레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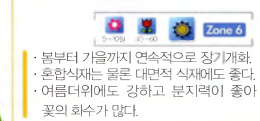


겨울상록의 적자색
관엽 식물 *Berberis*
홍매자나무



- 적자색의 아름다운 잎은 최상의 경관 관목이다.
- 암색가든, 톨메지, 띠복지용으로 이용가능하다.
- 다른 무늬종, 황금색종들과 효과적으로 이용하면 겨울가든의 풍성함을 연출할 수 있다.

적갈색의 강렬한 *Cosmos*
초콜릿코스모스



- 봄부터 가을까지 연속적으로 장기간 개화.
- 혼합식재는 물론 대면적 식재에도 좋다.
- 여름더위에도 강하고 분지력이 좋아 꽃의 화수가 많다.

봄부터 가을까지 겨울에 상록으로 *Dianthus*

패랭이 신품종



- 상록잔디패랭이에 이은 새로운 신품종
- 건조에 매우 강하고 상록성의 다양한 품종으로 우리나라의 건조기후에 알맞다.
- 혼합식재시 앞 라인에 적용하면 항상 꽃이 있는 정원 연출 가능

광장, 도로가, 계단, 주차장, 경계용 신개념 실용 화분!

에코웬스(화분용)

입체적 디자인이 가능한 신개념의 아름다운 노출 콘크리트에 식물을 직접 심을 수 있는 화분입니다. 엔틱과 모던함을 동시에 표현가능합니다.



구입문의 **벽화수(주)**
전화 031-726-0610 010-5018-9063



추식구근 식재

튤립 등 내년 봄 일찍 꽃을 보기위한 추식구근 식재는 10월에 11월 사이 땅이 얼기전에 식재되어야 한다. 기존 정원에 혼성식재하는 경우 2가지 방식이 있다. 전면적에 식재하는 방법과 자연스럽게 중간중간 포인트로 식재하는 방법이 있다. 기호에 맞게 선택하여 식재하는 데 주의할 점은 구근을 깊게 심어주어야 한다. 튤립의 경우 약 10cm 정도 깊이로 심고 충분히 물을 주어야 한다.

전정하기(커닝)

일이 갈변하면서 정원이 지저분하게 보이는데 어떻게 정리를 해야할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식물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어 주의할 사항을 포함해서 설명드리고자 한다.

낙엽성의 식물은 10~20cm정도 남기고 지저분하지 않을 정도로 잘라주는게 일반적이다. 그리고 자른 줄기로 식물체를 덮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붓꽃과 같이 봄에 꽃을 피우는 식물은 이미 겨울눈에 꽃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너무 짧게 자르면 식물체는 죽지 않아도 꽃이 피지 않거나 약하게 핀다. 일반적으로 자르지 말고 봄에 새순이 나기 전에 자르는 것이 좋다. 만약에 지저분하게 보인다면 최소 20cm를 묶어 보온의 효과와 일체미를 연출할 수 있다. 억새를 비롯한 그라스의 경우도 갈변된 식물체 자체로도 겨울관상가지가 있어 잘라줄 필요가 없지만 그이후 외에도 그라스 대부분은 식물체 하부에 봄눈을 가지고 있어 갈변된 식물체를 자르지 않고 봄에 잘라 주어야 한다.

상록성의 식물은 대부분 그대로 두어도 되는데 일부 잎이 갈변된 부분을 정리하거나 못자리 일을 보기 좋게 정리해주면 좋다. 내한성이 약한 상록성 관목은 부직포 등으로 보온 해주어야 한다.



한나무류의 잎을 전정해준다. 갈변된 잎유기 마트만 따낸다. 꽃꽂이 경우 동해방지를 위해 30~40cm 남기고 자른뒤 묶어주면 단정해 보인다.

가을채종

미처 채종하지 못한 야생화 종자는 내년 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종자코투리를 조심스럽게 전정기위 등을 통해서 자른 뒤 잘 말린다. 말린 종자는 비닐봉투 등에 담아 냉장보관하여 내년 봄에 파종하면 된다.

부직포를 이용한 식물의 보호

내한성이 약한 식물들은 벗겨지거나 부직포를 이용하여 보온을 해주어야 겨울을 안전하게 날 수 있다. 품종에 따라 다르지만 어렸을 때 내한성이 약한 향나무, 측백나무 등의 상록성관목은 하얀 부직포를 이용해야 한다. 겨울에도 광합성작용을 하기 때문이고 한편으로는 조형미를 연출하는데도 안성맞춤이다.

수국의 경우도 겨울에 지상부의 눈이 얼어 매년 잎은 무성하는데 꽃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지마다 하얀 부직포로 감싸주면 보온 뿐만아니라 조형미도 느낄수 있게 해준다.

수목 보온

이웃한 수목이 많은 반면 물을 감당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이변 공민 현대화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대상지는 공원 중심부에 위치한 원형으로 조성된 중앙화단으로 지난 5월 식재계획을 의뢰받았다. 기존에는 소나무와 주목이 심겨져 있으며 주변에 잔디밭으로 이루어진 곳이었다. 단순히 이루어진 식재 패턴으로



하얀 부직포로 줄기마다 끝까지 잘 감싸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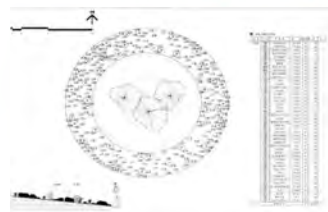
손도구 앞치마 4종세트

기본도구만 앞치마에 담았다!
가든도구 5종세트입니다.

구성 : 저탄소 강스틸레이드, 크롭도금, 우드손잡이도구길이 약 25.5cm, 칼퀴2종, 모종삽 2종

15,000 → 10,000원

blog.naver.com/gardenjoa777
가든조아:031-712-7009



고양시 일산서구에 위치한 강선공원은 예전 주엽4리 강선마을의 명칭을 따 붙여진 이름이다. 신선이 땅에 내려온 곳이라는 강선의 의미와 같이 신시가지 개발 이전의 이 지역은 매우 아름다운 산과 벌판이 있었던 곳이다. 현재의 강선공원은 주변에 동선 양쪽으로 메타세쿼이아가 울창하게 서있고 곳곳에 다양한 수목들이 잘 조성되어져 주민들의 쉼터로서 좋은 환경을 유지해주고 있다. 다만 수목이 많은 반면 물을 감당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이변 공민 현대화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대상지는 공원 중심부에 위치한 원형으로 조성된 중앙화단으로 지난 5월 식재계획을 의뢰받았다. 기존에는 소나무와 주목이 심겨져 있으며 주변에 잔디밭으로 이루어진 곳이었다. 단순히 이루어진 식재 패턴으로

로 중앙광장임에도 불구하고 다소 밋밋함을 줄 수 있는 공원의 느낌이 있었다. 그리하여 아름다운 식물들을 다양하게 감상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ARI가든(특히 제10-10367415)으로 설계방향을 잡았다.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는 밝은 색의 돌과 동근형태의 바위, 다양한 식물배치의 효과로 산책과 휴식을 위해 공원을 방문한 주민들에게 힐링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정원을 선물하고자하는 의도였다.

계획한대로 ARI가든으로 설계가 완성되었고 드디어 늦가을인 11월 중순경 실제 공사가 시행되었다. 먼저 약 140㎡정도의 기존 잔디를 제거하고 성토를 하였다. 시간이 지난 후 잔디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기존의 잔디를 완벽하게 제거하기 위해 10cm이상을 제거 했다. 모든 기반작업이 끝난 후 ARI가든 시공전 문간에 의한 돌 배치가 시작되었다. ARI가든의 돌배치는 일반 암석가든과의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쓰는 돌이 아닌 동근형의 바위를 쓰는 것이다. 먼저 돌을 놓을 때에는 공기선 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한다. 돌을 놓아서 식물을 심어도 돌이 가장 멋이 있도록 앞뒤 좌우측을 다 고려하여 돌을 놓아야하고 큰 돌하고 작은 돌을 섞어서 놓아야 한다. 돌을 비울대로 섞어서 놓아주는 게 바로 포인트인 것이다. 우리가 평상시에 돌을 놓고 그 옆에 돌을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많은데 각각의 돌은 멋있을지 몰라도 ARI가

든방식은 돌과 돌을 고려하여 놓는 방식으로 되도록 돌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모습을 살려 마치 산에 원래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도록 배치하였다. 반드시 돌의 앞뒤모양을 잘 보고 놔주고 돌을 놓다가 반지름이 보이면 시선이 흩어지므로 돌을 삼각구도로 놓아서 시선을 잡아주어야 한다.

산석의 자연스러운 배치와 끝난 후 땅을 고른 후 G커버를 깔고 배치해둔 산석의 모양을 고려하여 약 60여종의 식물들을 가지고 봄부터 겨울까지도 예측한 배치를 한 후 그대로 식재가 이루어진다. 계절이 11월이므로 아직 꽃이 있거나 화려하지 않지만 내년 봄에는 추식구근인 튤립을 시작으로 꽃잔디, 들장미, 상록잔디페랭이 등이 정원을 장식하면서 뒤이어 계절별로 다양한 꽃들이 주민들을 마중 나갈 것이다.

식재가 끝난 후 마지막으로 그린키퍼(멸칭제)를 깔았을때 이제야 암석가든의 느낌을 더 외닿게 해준다. 지나가던 사람들 역시 공원의 색다름을 느끼면서 당장은 꽃이 없지만 시공자의 내년에 변화될 모습에 대한 설망을 들고나서 이미 행복한 내년을 꿈꾸고 있는 듯했다.

아마도 내년 봄에는 상상 이상의 아름다운 꽃들을 보면서 건강태매김을 걸으며 많은 아가 행복할 거라는 믿음을 얻어갈 것이다. 내년 봄, 이곳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꽃' 종자소개

우리꽃이 새롭게 선보이는 가든종자 100선

우리꽃이 새롭게 선보이는 가든종자 100선!!

이제 **다양한 꽃을 가정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종자시장은 주로 조경용으로 사면복 화에 이용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유통되는 종자도 그에 맞는 수종으로 매우 한정적이다. 그나마 지난호에서 말씀드렸듯이 10여년간 우리꽃에서 그 종류를 광범위하게 넓혀 왔던 것이 지금 정도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으리라 본다. 그렇다만 조금 눈을 돌려 가정원예용 종자유종의 현황은 어떠한가 살펴보자. 계속적으로 가정원예에 대한 관심도가 늘어나면서 개인들의 꽃모나 종자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는 추세이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에 대한 감응을 풀어줄 수 있을 만큼의 소재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광범위하게 제공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개인이 구매해서 집에서 기를 수 있는 수종도 매우 제한되어져 있다. 우리꽃에서는 이러한 개인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정원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가든종자 100선'을 다가오는 2015년에 선보이기로 했다.

다양한 품종의 가정원예용 종자 보급

우리꽃이 선보이는 '가든종자 100선'은 가정에서 기

를 수 있는 다양한 품목을 엄선하여 기호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에는 선택할 수 있는 품이 좁았으나 1년초, 다년초 구분없이 다양하게 구비하였다. 예를 든다면 양귀비종류도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종은 2~3종으로 한정되었지만 8종이상 선택할 수 있으며 수레국화도 색상별로 가능하고 허브류, 고급 일년초, 야생화 등 관상가치가 우수한 수종을 선보일 예정이다.



용적인면에서 부담을 덜 수 있어 가정에서 효율적인 꽃종자의 선택을 가능하게 해준다.

소포장으로 원하는 수종, 수량 자유롭게 구매 가능

원하는 품목이 있더라도 가정에서 사용하는 용량은 대부분 적은 양이기에 기존처럼 포장단위가 크면(물론 화원 등에서 소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것도 있지만 수종은 지극히 제한적이다.) 당연히 가격부담이 있고 구매하더라도 쓰고 남은 종자는 어딘가에 처박혀 있어 아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점을 감안하여 '가든종자 100선'은 최소한의 단위로 소포장하여 보급한다. 원하는 품목을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구매가 가능하여 비



홍보용 판촉물로 최적의 상품

기업이나 단체의 홍보, 마케팅의 일환으로 관측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이다. 반면 관측물의 소재는 다양하지만 반짝 눈에 띄는 소재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런점에서 '가든종자 100선'은 그린마케팅이란 관점에서 좀 더 선명하고 깨끗한 기업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는 관측물 소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리라 본다. 물론 기존에도 꽃씨봉투를 기업 관측물로 이용한 사례가 오래전부터 있어왔지만 그 품목이 봉선화, 과꽃, 분꽃 등 전관일품적인 소재로 일관하였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제는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종자를 이용한 그린마케팅을 펼친다면 비용대비 효과는 그 어떤 관측물보다 뛰어나리라 예상된다.

2015년 '가든종자 100선'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가정원예용으로 유용한 소재를 발굴해서 시리즈로 계속 선보일 계획이다. 많은 관심과 호응 부탁드립니다.

우리꽃이 우리씨드그룹으로 100년을 선언합니다.

우리씨드그룹의 비전과 CI의 새로운 선편

우리씨드그룹은 생명산업용 근간으로 하는 기업으로 우리꽃영농구조와 우리꽃영농조합법인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가든조이, 벽화수 주식회사를 구성하고 있다. 우리꽃창립 15년을 넘기면서 새로운 15년을 맞이하는 우리그룹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시대인 자연과 도시가 문화적 환경적 일체화되는 나트컬처 시대를 앞장 서 준비하고 구현하기 위한 사상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새로운 CI를 선편한다.



세포분열과 무한대

우리씨드그룹의 심볼마크에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세포와 핵의 모습이 담겨 있다. 하나의 핵이 2개로 분열하면서 나타나는 100은 한정하지 않는 무한대를 의미하고 이는 다시 4개의 원으로 분열하며 조식을 나타내고 4방을 의미한다. 또 이들이 분열하여 만들어 내는 8개의 원으로 완성하여 8방을 구현하였다. 또 숫자 8은 낙인의 회복, 재생, 부활, 완전한 리듬의 상징이다. 또한 8은 완성상태를 내며 기산과 균형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이다. 또한 숫자 8은 모든 종교에서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고 재생과 불멸을 뜻하기도 한다.

아름다운 결정체

심볼마크를 구성하고 있는 8개의 원과 한핵 라인으로 분리된 여러 24개의 타원들은 정당한 대칭을 이루고 있다. 대칭은 우주 만물의 모습으로 균형과 평온을 상징한다. 또 이들이 나타내는 하나하나의 공간은 세포인 동시에 꽃씨에 씨앗 또는 꽃잎을 상징하기도 한다. 심볼마크 자체가 생명의 결정체임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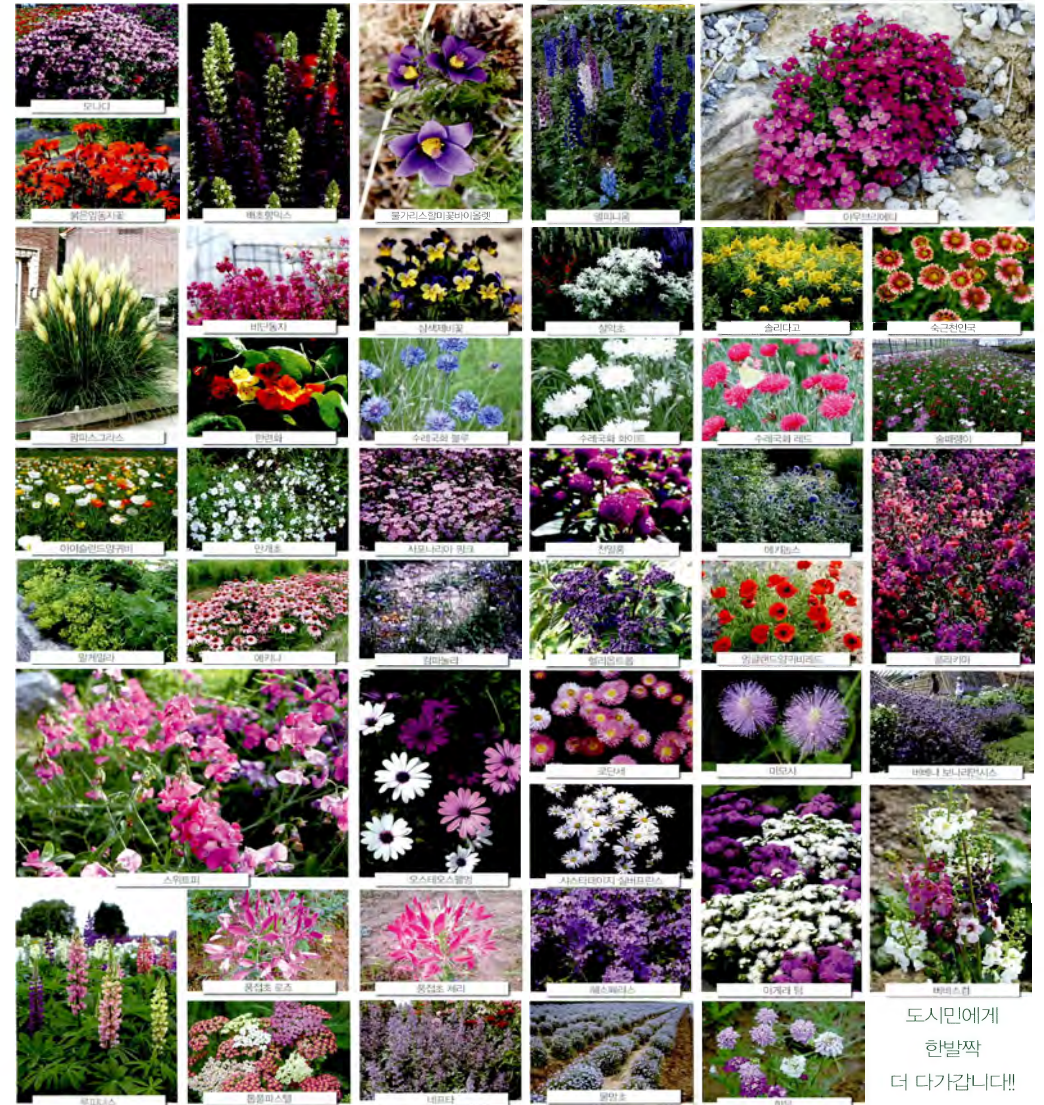
생명의 에너지

생명 유지 에너지의 근원이 되는 것은 태양이다. 우리씨드 심볼마크의 형상이 생명의 근원과 그로 인해 잉태된 생명의 결정체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심볼마크의 붉은 컬러는 태양을 의미한다.

태양은 지구 생명체의 에너지의 근원이다. 생명산업용 근간으로 하는 우리씨드그룹은 태양 에너지 최적화의 추구함을 목표로 생산성을 제고한다. 특히 인문, 자연의 녹화를 가능하게 하여 자연에너지원을 최대한 이용 생산성을 향상하는 것이다. 이 결과 인류의 노동 생산성, 에너지 생산성을 증가시켜 여유의 에너지를 지구환경개선과 치유에 활용하여 미래지구를 청정, 파라이아스의 아름다운 지구를 건설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든종자 100선 주요품목소개

가든종자100선 주요품목소개



도시민에게
한발짝
더 다가갑니다!!



유대하기 편리한 스케줄용 2015년 캘린더 발간

우리씨드그룹은 내년도 캘린더(280x215)를 제작, 발간하였다. 기존의 탁상용 캘린더의 비효율성 대신 벽에 부착가능하고 휴대 가능하여 스케줄관리용, 간단한 메모용으로 유용하다. 겉면여전 아름다운 꽃 사진은 한층 볼거리를 더해준다.

가정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용 생나무 BEST 5

- 구상나무: 외국에서도 인기가 높은 구상나무는 국내 토종, 한산출산으로 인기비결은 바로 부드러운이다. 잎의 감촉이 부드럽고 잎의 은 색 빛은 화려함을 더해 고급스럽게까지 한다.
- 주목: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을 간다는 주목은 인기 불변의 대표 조경수이다. 사람의 손길을 좋아하는 수종으로 1년에 2회 정도 전정을 해주어야 한다.
- 코니카가문비: 특별한 관리를 하지 않아도 원추형으로 잘 자라 트리용으로 많이 이용된다. 나무의 속이 전혀 뜨지 않고 스스로 수형을 만들어 내는 수종이다.
- 에베랄드그린: 측백나무를 대표하는 고급 품종이다. 밝은 녹색의 잎에서 향기가 난다. 잎과 가지가 조밀하고 원추형의 수형이 자극히 아름답다.
- 전나무: 구상나무와 같이 원추형의 수형이 아름다워 조경수나 크리스마스 트리용으로 찾는 이가 많다.



실내의 자연 인테리어

아름다운 절화의 장기간 관상법



절화를 물에 꽂아 신선한 상태로 유지되는 기간을 절화의 수명이라고 한다. 수명을 길게 유지시켜 꽃을 오래도록 관상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미생물 번식을 막기 위해 물에 락스를 한두 방울 정도 떨어뜨려 준다.
2. 너무 고온에 노출시키지 않는다.
3. 꽃의 물을 자주 갈아서 노화방지과 미생물 번식을 막는다.
4. 줄기의 절단면을 사선으로 잘라주어 물의 흡수면적을 최대한 넓혀준다.

식물의 품종특허

품종보호 등록

랜드폰시장에서 삼성과 애플의 특허권 분쟁이 일어났다. 앞으로는 모든 산업에서 특허는 중요한 화두이다. 우리가 정원에서 기르고 있는 식물 또한 개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품종보호 등록제도가 있다. 개인이나 기업에서 개발하여 국립종자원 또는 산림청에 출원한 식물체는 시험재배를 통해 신규 품종으로 인정되면 종자산업법에 의거, 품종보호 등록이 된다. 다시 말하면 개발자의 허락없이 타인에 의해 무단으로 증식, 복제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권리를 침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식물산업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을 통해서 많은 신품종이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현장에서 개발된 품종에 대한 보호가 지켜져야 계속적으로 좋은 품종이 개발될 수 있고 외국으로 로열티 수출의 밑거름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가을을 넘어 겨울 정원의 파수꾼

그라스(Grass)



그라스는 흔히 으새류라고도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정확히 말하자면 역시 뻗어나와 화려하고, 사조과로 대표되는

식물군으로 조경용 숙근지피식물의 큰 군을 이루고 있다. 그라스는 매우 고급스럽고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는데 식물의 품이나 질감이 아주 다양하여 특징적인 조경을 연출할 수 있다.

특히 품종에 따라서 가을단풍의 질감과 일반적인 식물에 없는 겨울에 더욱 돋보인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멋스런 감동이 그라스 조경의 최대 매력이다.

혼성식재 최고의 트렌드

구근식물

• 춘식구근(봄에 심는 구근)

칸나, 다알리아, 글라디올러스, 꽃백합, 베고니아, 프리지아, 아미릴리스, 칼라 등

춘식구근은 봄에 심어서 여름에 꽃을 피우는 꽃을 말한다. 늦어도 5월말까지 구근을 심어야 한다. 꽃은 11월까지 피는데 개화시기는 꽃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춘식구근은 대부분 열대지방이 원산지인 것이 많아 겨울의 혹독한 추위에 견딜수 없기 때문에 서리가 내리기 전에 캐해서 저장해야 한다.

• 추식구근 (가을에 심는 구근)

튤립, 수선화, 무스카리, 크로커스, 알리올리안티움, 알리올리, 프리빌라리아, 아네모네, 하야신스 등



추식구근은 가을에 서리가 내리기 전에 심어서 봄에 꽃을 피우는 구근을 말한다. 추운 겨울을 땅속에서 보내는 겨울의 낮은 온도가 봄에 싹을 틔우는 필수조건이다. 추위에 강한 온대가 원산지인 화초가 대부분으로 여름에는 땅위의 잎이나 줄기는 죽고 땅속의 뿌리는 휴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6월 구근을 캐서 보관한다.

Book

식물, 역사를 뒤집다. 문명을 이끈 50가지 식물



양배추가 없었더라면 로마의 멸망이 더뎠을지도 모른다? 전 세계 인구의 10분의 1을 죽음으로 내모는 담배가 현대는 기적의 치료제였다.

이 책은 역사를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50가지의 식물들을 통해 역사의 획기적인 사건을 마주한다. 과거, 인간과 식물의 불가피한 공생 관계를 살펴보며 앞으로의 공생에 대해서도 고민의 여지를 단진다.

— 저자 빌로스, 역사 서풍기 / 예경

자살적 구독요금

많은 독자들의 요청과 열연에 의해 정원과 품종의 가이드 매거진 '우리넷'을 복간하여 확대,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과 기부를 부탁드립니다.

본인 후원금 독자들에게
2015년 12월 31일까지 무료 배송
해 드립니다.

**지정된 계좌에
후원을 하시려면**

농협: 183-12-304270
예금주: 박공영
전좌: 031.634.7990